

# '님의 침묵', '공약 심장' 산실 방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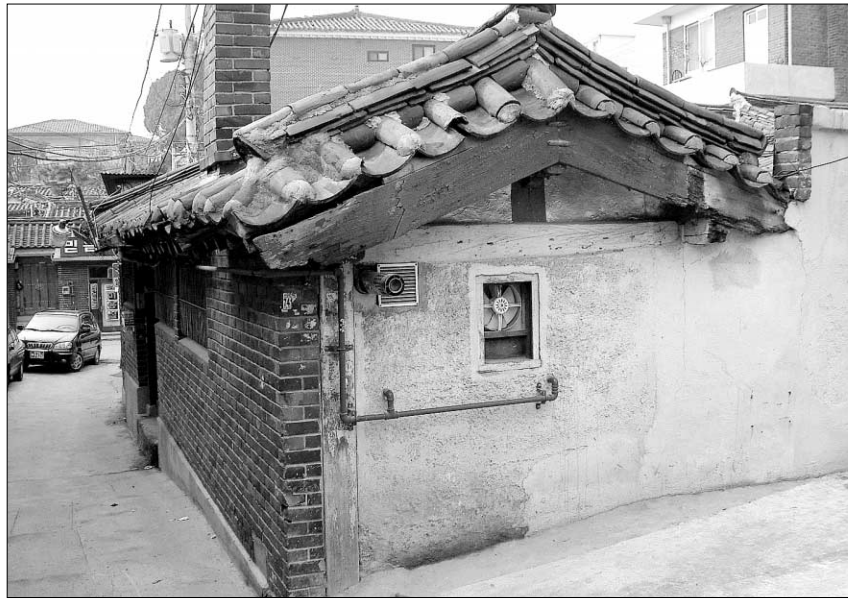
만해 한용운 스님이 1919년 3·1만세 운동의 기미독립선언문 공약상장을 작성한 현장이며, 나라 잃은 슬픔과 독립의지를 담은 시 '님의 침묵'을 탈고했던 계동 한옥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

서울 종로구 계동 북촌한옥보존마을에 있는 35평 남짓한 'ㄷ' 자형 한옥은 독립운동가이며 민족시인으로 근대사에 큰 자취를 남긴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이 15년 동안 거처했던 고택이다. 소설가 오인문(종로구 홍지동)씨가 1월 초 처음 발굴한 만해 스

공식적인 답변은 없지만 '건물의 변형이 심해 문화재 지정이 힘들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만해 스님의 옛집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3·1절만 되면 만해 스님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교계가 나서 옛집을 매입하여, 기념관 건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1988년 이사 온 건물주 여규평씨는 "몇 차례 집을 보수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원형보존이 쉽지 않다"며 "시나 구가 좋은 뜻으로 매입하여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면 기꺼이 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근·현대 건축물의 경우 뚜렷한 역사 및 문화적 가치가



만해 한용운 스님이 3·1 독립선언문 공약상장을 집필한 현장인 서울 종로구 계동 옛집이 방치되고 있다.

입증되지 않으면 문화재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연세대 연신원 건물과 육당 최남선 고택이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기습 철거되고 있다. 그나마 만해스님 옛집은 현소유주의 뜻이 좋아

당장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가족 소유주들이 문화재 지정을 우려해 먼저 가옥을 철거해버리는 추세에 우리 역사 문화 공간의 멸실이 우려된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 우리 것 우리 신도

### 흥국사의 '살아있는 역사책'

#### 고양 흥국사 최정에 신도회장

"예전에 여기쯤 중문이 서 있었고 바로 옆으로 붙어서 쪼그만 방이 있었죠. 거기서 오래 보살들하고 시집살이 이야기며 부처님 이야기 참 많이 했어요."

경기도 고양시의 가장 유서 깊은 사찰인 흥국사. 조선 왕조의 원찰인 흥국사에는 '살아있는 역사책'으로 통하는 보살이 있다.

최정에 보살(70세, 법명 백광화). 6년째 흥국사 신도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 보살은 첫 아들을 낳던 삼십년 전부터 올해까지 40년

다. '인육보살'이라는 최 보살의 별명이 바로 그것이다.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얼굴 한번 찡그리거나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기에 붙여진 별명이다.

최 보살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네 맞습니다. 보살님. 보살님 말이 맞는 것 같군요."라며 일단 상대방의 이야기를 무조건 들어준다.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늘 웃으며 말을 하기 때문에, 혹 언성을 높이는 일이 생겨도 화를 낸 사람이 오히려 무안해져 사과를 하는 경

우도 있다. 그래서 신도회 주축으로 진행되는 초파일 행사는 물론 각종 재일 불교이며 기도회도 최 보살의 소리 없는 노력에 의해 불꽃처럼 매끄럽게 진행된다. 자기를 내세우는 법이 없는 최 보살의 숨은 노력은 흥국사 신도들의 신행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 보살은 최근 창립된 고양 천수천안자원봉사단에 흥국사 신도들이 주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리를 놓았다. 신도들의 신행과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최 보살의 꾸준한 수행의 결과이기도 하다. 최 보살은 매일

#### 상대방 존중, 모든 일 매끄럽게 진행

#### 70고령에 삼천배 정진, 불자들의 모범



최정에 회장(왼쪽)과 도반인 채영란 보살이 부처님 오신날에 사용할 연등을 만드는 모습.

동안 흥국사 약사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고양양 자리에 산신각이 세워졌다가 중창된 것이며 공양간, 종무소, 명부전이 차례차례 들어서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눈에 선하다. 그 사이에 흥국사는 주지 스님만 아홉 명이 바뀌었다.

40년이면 강산도 네 번 변했을 세월이지만, 최 보살에게는 변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다.

아침 새벽 금강경과 천수경을 독경하는 것을 일과로 삼아 마음 공부하는 한편, 매달 열리는 월야 법회에도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70 고령에도 불구하고 약사재일에 열리는 삼천배 정진에도 젊은 사람 못지 않게 열성적으로 참여한다. 최 보살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젊은 불자들의 신행을 옆에서 도와주고 싶다"고 소망을 밝혔다. 강유신기자



추천의말 대오스님 흥국사 주지

최정에 보살은 신도들 사이에서 맑은 마음으로 정평이 난 불자입니다.

70이 넘는 나이에도 삼천배를 너끈히 해 내는 모습이나, 불교교양대학을 한번도 빠지지

#### 신도들의 정신적 지주

않는 열정 때문에 최 보살은 흥국사 신도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흥국사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최 보살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 보살 같은 불자들이 있기에 흥국사 신도회가 화합된 모습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 869건 확정

### 불교 관련 217건, 553억 4800만원

### 양주 회암사지 토지매입 28억 책정

문화재청은 최근 올해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869건을 확정하고 국비와 지방비 포함 2천798억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960건 2천403억2천만 원)에 비해 건수는 줄었지만 예산은 16.4% 증액된 규모로 사업 당 평균 사업비는 3억 2천만 원이다.

이 중 국고보조를 받아 보수·정비하는 불교 관련 문화재는 모두 217건이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553억4800만 원이다. 이를 시도별로 보면 전라남도가 54건 133억3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 44건 85억1300만 원, 경상남도 31건 80억 원, 충청남도 16건 54억5400만

원 순이다.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국가사적인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128호) 일대 토지매입으로 28억5700만원이 투입되며, 조계사 대웅전 보수에도 28억이 책정됐다.

사찰소장 비지정 불교문화재 도난방지를 위한 성보박물관 건립을 위해 구인사, 무위사, 불갑사, 보림사, 불국사, 기림사, 은해사, 청곡사 등 8개 사찰에 모두 78억 원이 지원된다. 산청 율곡사 괘불(보물 1316호), 구례 천은사 극락전 아미타후불탱화(보물 924호) 등 8건은 9억5천만 원을 들여 도난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불교관련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단위:천원)

시·도	건수	예산
서울	1건	2,800,000
부산	1건	142,857
대구	3건	414,285
인천	4건	768,571
광주	2건	250,000
대전	없음	없음
울산	1건	200,000
경기	9건	4,833,999
강원	13건	3,401,142
충북	10건	2,965,714
충남	16건	5,454,284
전북	26건	3,970,570
전남	54건	13,331,712
경북	44건	8,513,422
경남	31건	8,001,425
제주	2건	300,000
계	217건	55,347,981

## 자용스님 방송프로듀서상 수상



### 재치있는 진행, 강원 어린이 교육 공로

불교방송의 어린이 포교 프로그램인 '툼비니동산(월·토 오후 4시45~5시)'을 진행하는 자용스님(평창 극락사 주지·사진)이 제15회 한국방송프로듀서상 라디오 진행부문을 수상했다.

10년 동안 '툼비니동산'을 진행해 온 스님은 사찰 주지로, 중앙승가대 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원장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며 어린이 포교에 힘쓰고 있다. 2월 27일 열린 시상식에서 한국방송프로듀서협회는 "재치있고 유머 넘치는 진행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 왔으며 어린이 교육이 미미하던 강원지역의 어린이 교육에 앞장서온 공로가 인정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수상에 힘입어 어린이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수상소감을 밝힌 스님은 "앞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쉽고 재미있고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여수령기자

## 충북 '도정발전기원법회' 봉행



한해 지방행정과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한 충청북도와 지역 불교계가 함께하는 도정발전기원법회(사진)가 지난 2월 20일 충청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충청북도 도·불법의회 회장 지명 스님(법주사 주지)과 이원종 충북도지사, 지역 사찰 주지 스님들과 신행단체장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우 충북지사장

## 봉은사 주변 건축물 높이제한

봉은사 주변의 건축물 높이가 올 하반기부터 제한된다. 서울시는 봉은사 주변에 초고층 빌딩이 난립해 주변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높이를 제한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김원우기자

## 고창 선운사 강원, 학인모집

고창 선운사주지 법현가 불교강원을 개설하고, 5일부터 4월 2일까지 학인을 모집한다. 선운사는 초대 강주 법장스님은 "선운사 강원은 한문 독해 능력 습득을 통한 불경 원전 교육과 현대적 감각 배양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063) 561-1422. 김원우기자

# 설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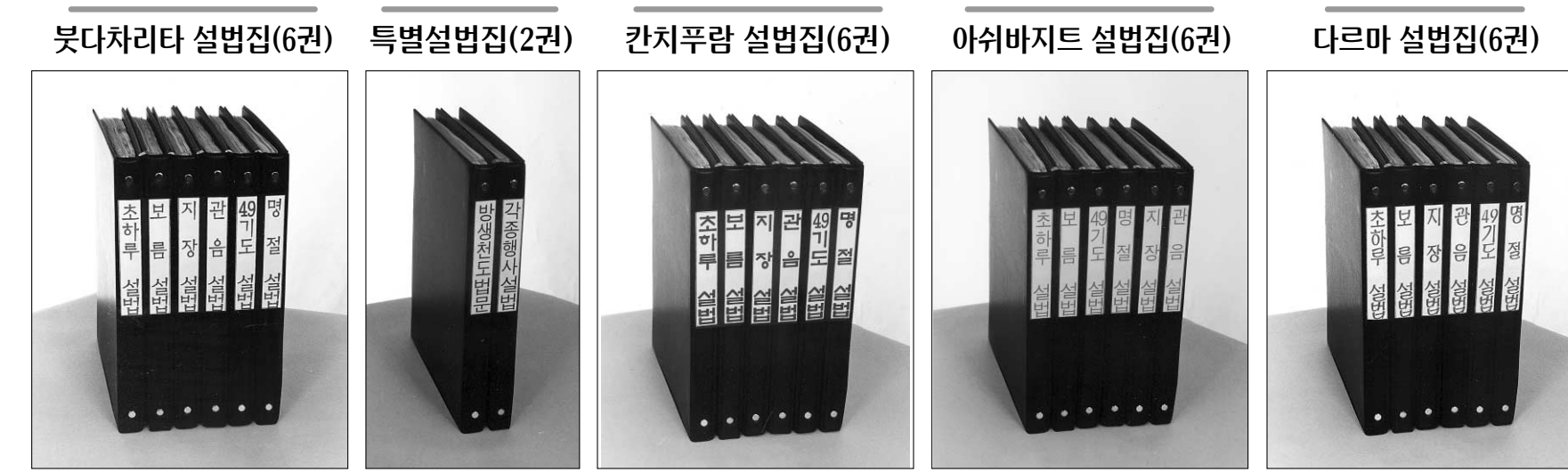
## 찬탄과 헌공으로 가는 계획된 감동

있으신가요! 신도 조직에 활력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포교 활동이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수행·정진만 있고 법회가 없습니까?  
법회는 있는데 설법이 없습니까?

### 특징

- 반드시 경건 말씀을 근거로 했습니다
- 자유개방로 응용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 같은 내용이 겹치지 않습니다
- 누구나 안경 없이 볼 수 있는 일까 크기
- 1편의 분량은 약 25분 소요
- 1편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여섯 가지 이상 수록
- 1편씩 따로 떼어낼 수 있어서 책 한 권을 전부 들고 다닐 필요가 없음

초하루, 보름, 지장, 관음, 백중기도, 명절, 방생, 영가천도, 특별행사, 교도소, 경찰서, 거사림회, 보살회, 각종 법회



설법은 딱딱한 지식 전달이나 가벼운 재담이 아닙니다. 경험담이나 개인 생각도 아닙니다.  
설법은 재미없는 사설이나 논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설법은 헌공과 찬탄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획된 감동입니다. ★ 설법준비 섬려없습니다 ★